

2021년 가을 조직구조와 개발 중간시험

문제는 필수 문제 1과 2, 선택문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문제는 다 답해야 하고 선택문제는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선택해서 답하세요. 시험시간은 3시 30분에서 5시까지 90분간이고 5시가 지나면 시험지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메일(email)로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감점됩니다. 분량은 3페이지 이내입니다(글자 크기, 10 폰트; 줄 간 스페이스 160%(한글), Word 1.15; 좌우와 상하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허락하세요). 3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할 시험은 표절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 표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쓴 답안이어야 합니다. 100년 기업의 변화 경영 리뷰와 자신의 답안이 담긴 두 파일을 제시간에 제출해주세요.

필수문제

1. Lewin이론과 신 Lewin이론이 근원적 변화(Deep Change)에 대해 가진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라. 2) Agyris의 Skilled Incompetence를 신레빈이론 관점에서 설명해보라 3) Kegan & Lahey의 Competing Commitment를 신 레빈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라 4) 앞의 1), 2), 3)에서 배운 논점을 반영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반박해보라(40점).

2. 매트릭스 영화의 가상세계는 더는 영화 속의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5G, 6G, VR, AR, MR, XR 기술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술, IoT(사물인터넷), GPS 등의 발전에 힘입어 매트릭스 세상은 일반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구현되고 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AI를 이용한 Business Analytics, 로봇의 상용화 등으로 경영자의 역할과 종업원의 전통적 일을 대체하고 있다. 이 가상세계가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인간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특이점(Particularity)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 Universe)란 말 그대로 가상세계(virtual universe)와 현실세계(real universe)가 통합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메타버스 논의는 이런 근원적 변화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알고리즘 개발과 기술발달로 좁게 이해한다는 점이 문제다. 알고리즘 특이점에 도달해 가상세계의 감옥에 갇혀 사는 불행이 오기 전에 Z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인 여러분이 변화 컨설턴트로서 매트릭스가 지배하는 가상세계를 인간이 경영하는 시온의 현실세계와 제대로 통합하는 근원적 변화를 위해 기업에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30점)

선택 (택 2)

1. Beer & Nohria 교수의 E 이론과 O 이론이 경영자나 변화 컨설턴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시된 다섯 차원에서 두 이론을 통합하는 원리를 설명해보라. 여러분의 변화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5점).

2.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 쇼를 지켜보다 채널을 돌리는 제 삼자 관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15점)

3. 불확실성의 망망대해에 별거벗은 몸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근원적 자신감과 조건적 자신감에 대해 설명하라. 2) 근원적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나? 3) 여러분이 40대나 50대가 되었을 때 사회로부터 성공적 경력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근원적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설명하라. (15점)